

제1회 김대중 평화상에 소심당 조아라 선생

‘민주화의 대모’ 재조명...민주주의 가치 일깨워 DJ재단, 16일 오후 4시 시상식·송년의 밤 행사

제1회 김대중 평화상 수상자로 소심당 조아라(사진) 선생이 선정됐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12일 “제1회 김대중 평화상 수상자로 조아라 선생을 선정, 오는 16일 오후 4시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재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평화상을 제정했다. 조아라(1912-2008년)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지위 향상, 민주화운동에 일생을 바쳐 ‘광주의 어머니’, ‘민주



화의 대모’로 불린다. 그는 1980년대 일제에 항거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해방 이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1951년 성빈여사를 개원하고 야간 중학교인 호남여숙 설립, 광주YWCA 재건에도 힘썼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간 수습 대책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속자와 부상자들

을 돌보고 1980년대 가족법 개정 서명은 동 등에도 앞장섰다. 소심당은 의재 허백련 화백이 지어준 호(號)이며, 속옷을 기워 입을 정도로 검소한 모습을 보고 ‘티 없이 깨끗하다’는 뜻을 담았다. 재단은 조아라 선생의 일생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추구해 온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제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전국의 민주 인사, 유족

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은 이날 시상식에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재 장관을 초청해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연다. 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현 시국을 진단하고 미국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최경주 광주전남김대중재단 이사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의 권리와 자유라는 기본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김대중 평화상은 단순한 시상식이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은진기자



표지석에 게란 던지는 5·18 단체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12월 2일 오전 광주 5·18 단체 회원들이 전두환씨의 호를 딴 경남 함천군 일해공원을 방문해 표지석에 게란을 던지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표지석에 ‘내란 수괴 전두환과 윤석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5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임상필 대법관)는 12일 2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아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 노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

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미 필적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직

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 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합뉴스

김원이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3개 법안 발의

“영산강·목포 해양쓰레기 실질적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2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화장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해양폐기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부여하는 한편, 해양관리청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 제정 일인 9월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화장품의 날 관련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안·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영산강 하구와 목포 해안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양쓰레기 감소 및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목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전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2년 연속 ‘우수’

전국 13개 센터 중 1위

전남도는 12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실시한 2024년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광역형 새로일하기센터 부문에서 전국 13개 기관 중 1위인 ‘우수’ 센터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사업을 운영한 전국 13개 도, 시·군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센터 운영 등 23개 지표를 평가해 A~D 등급을 부여했다.

전남에선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해 목포·순천·여수·장성센터와 함께 B등급을 받았고 광양·영암·화순센터는 C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평가 결과와 올해 운영 실적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의 사업비와 총사업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김영록 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여성 고용률 전국 3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2위를 기록했다”며 “한해 동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총사업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인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